



2015 이클레이 세계총회
도시의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해법
2015년 4월 8-12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주최



I.C.L.E.I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



2015 이클레이 세계총회 결과보고서

지역 실천활동으로 만들어 온 이클레이 25년
(25 years of impact – one world of local action)

파트너십과 대변활동을 위한 고위급 총회, 기존 논의를 가속화하며 새 주제를 출범
아시아 권역에서 이클레이의 위상을 강화하고 아시아 의제를 강조



3년마다 개최되는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 및 파트너 기관들의 회합이다. 그동안 각자 추진해 온 지역 실천활동 성과를 발표하고, 새로운 공약을 출범시키며, 향후 3년을 위한 새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2015 이클레이 세계총회는 아시아에서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히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클레이 세계총회 역대 유치 도시

- 1990년 창립 총회: 미국 뉴욕
- 1992년: 캐나다 토론토
- 1995년: 일본 사이타마
- 2000년: 독일 데사우
- 2003년: 그리스 아테네
- 2006년: 남아공 케이프타운
- 2009년: 캐나다 에드먼턴
- 2012년: 브라질 벨로호리존테

2018 이클레이 세계총회 유치 신청 접수

세계총회 유치 혜택

- 글로벌 인지도 제고
- 단체장을 포함한 전 세계 지방정부 관리, 국제기구 대표단 등 수백 명의 해외 방문객 유치
- 각국 도시의 선도적 정책사례 공유
- 유치도시의 환경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 전 세계에 확산
- 유치도시 정책에 대한 국내외 언론의 관심 촉발
-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지방정부 그룹의 주창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강력한 지도력 발휘
- 국제행사 유치도시로서의 입지 강화

2018 이클레이 세계총회 유치 관련 문의: 이클레이 세계본부 세계총회팀
(world.congress@iclei.org)



발행
이클레이

작성
Eilish O'Loughlin, Jiwon Lee, Monika Zimmermann, Joseph Wladkowski, Kristen Körsgen, Kathrine Brekke, Michael Woodbridge, Peter Eckersley, Katrina Borromeo, Dominic Kotas, Margaret Keener, Eva Madeira, Nancy Ning, Gino Van Begin, Yunus Arian

사진
이클레이 & 서울특별시

디자인
Margaret Keener, Angelo Becker

편집
Dominic Kotas

추가 정보
worldcongress2015.iclei.org
world.congress@iclei.org

판권
© 2015, ICLEI World Secretariat, Bonn, Germany

무단 전재 금지
어떠한 경우에도 이클레이 세계본부의 서면 동의 없이는 본 출판물을 복제하거나 복사할 수 없습니다.

본 출판물을 인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를 밝혀야 함:
"ICLEI World Congress Report 2015, ICLEI-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 2015"



박 원 순

서울특별시장 / 이클레이 세계회장

2015 이클레이 세계총회를 맞아 이클레이 세계회장으로 선출된 데 대해 대단히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500명 이상이 세계총회 참석을 위해 서울을 찾았습니다. 전 세계 지방정부 단체장 100명이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일국의 수도만 40개가 참가했습니다. 우리는 총회 결과문서, '서울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각자의 지역을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총회 기간 동안 이클레이 전 세계 회원 등 총회 참가자들은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하고, 파트너들과 교류하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시장협약, 카본 기후등록부, 전환행동프로그램(TAP) 등 이클레이의 글로벌 프로젝트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총회 기간 중 총 11개의 양해각서가 새로 조인되면서 이클레이는 파트너십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총회 성과를 토대로 '협력과 연계'를 전 세계 회원 지방정부들이 향후 3년 동안 강력하게 추구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방정부 연합체로서 우리는 우리의 야심찬 목표와 이행 방안을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2020년 이후의 새 국제 기후체제 안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갈 것입니다.



지노 반 베긴

이클레이 사무총장

2015 이클레이 세계총회는 때마침 지역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 선도 도시들의 연합체인 이클레이의 창립 25주년을 맞아 회원 도시들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돼 준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 이클레이 창립 당시에는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이 아직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 만들기는 국제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서, 정치적 필수 과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는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러한 최근 흐름을 어떻게 활용해 갈 것인지,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당면해 있는 미래의 도전과제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완벽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가장 많은 고위급 참가자를 초청할 수 있었던 만큼 우리의 영향력과 힘, 다양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준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총회를 통해 분명해진 사실 하나는, 파트너 및 다양한 이해당사자 그룹들과의 상호 연계를 이클레이가 앞으로 더욱 더 강화해 가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총회 기간 중 이클레이는 타 지방정부 네트워크, 기업, 연구자, 시민사회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관계 수립 및 협력을 가속화했습니다. 이는 이클레이의 향후 임무가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위한 노력을 뒷받침하는 등 이번 총회는 이클레이가 앞으로 어떤 조직으로 남아있어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강조하는 자리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클레이는 전 세계 지방정부들을 위한 네트워크로서 배제되는 이 없이, 또한 서로 연결돼 있으며 진취적인 조직,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짐으로 하나가 된 조직을 앞으로도 계속 추구해갈 것입니다.



2015 이클레이 세계총회 주요 메시지



2015년 4월 9일 개막 총회 도중 열린 시장단 패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영상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서울의 약속' 내려받기



www.iclei.org/promsieofseoul

'서울선언' 내려받기



www.iclei.org/seouldeclaration

'2015-2021 전략계획' 내려받기



www.iclei.org/seoul-strategic-plan

1. 우리는 자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우리가 살고 있는 **곳**,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지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클레이 회원들은 **혁신적이며 전환적인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 개최도시 서울, 변화를 구현해낸다. 서울은 전 세계적인 거대 도시로 성장해가는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위한 혁신적인 노력 또한 그에 못지않게 기울여왔다. 그 과정에서 이룬 커다란 성과 중 하나가 바로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이다. 서울은 이 정책 하에 2014년 6월, 원전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 수요를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서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다. 원전하나 줄이기 2단계 계획이 **'서울의 약속'**이라는 새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총회 기간 중 이클레이 회장으로 새로 취임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표로 소개됐다.

- 도시 지속가능성 의제, 시장 집무실까지 도달하다. 총회 도중 '서울선언'을 발표하고 채택하는 자리에서는 시장, 부시장, 선출직 대표 등 단체장급 참석자가 200여명에 달했다. 이로써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가 각 지역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가 명백히 나타났다.

- 이클레이 회원 도시의 새 물결, 야심찬 목표와 변화를 주도하다. 이번 총회에는 신흥 대도시가 다수 참가했다. 더 작지만 역동적인 도시들도 함께 했다. 이들 모두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아이디어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 이클레이 회원들, 새로운 의제를 받아들다. 지속가능한 식량 체계, 녹색 '공유' 경제, (자원을) 생산하는 도시 등의 새로운 도시 의제들이 이번 총회에서 이클레이 회원들 앞에 첫 선을 보였다. 총회 중 출범시킨 **'2015-2021 전략계획'**을 통해 이클레이는 이들 상호 연계된 주제들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 도시가 함께 모이면 파트너십이 활성화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클레이 네트워크 3개가 새로 결성됐다. 도시농업 & 식량회복력 네트워크 (도시식량), 100% 재생에너지 도시 네트워크, 지속가능 공공구매 세계 선도도시 네트워크 등이 그들이다.

- 아시아권 도시들, 실천을 위한 준비태세를 갖추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대표단이 대거 파견됐다. 이들은 서울시의 공약에 공감을 표했다. 또한 도시 지속가능성을 위한 아시아 도시들의 노력과 역량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었다. 중국 도시의 미래를 주제로 한 회의에는 중국의 도시들이 파견한 주요 인사들이 참가해 발표를 했다. 이 외에도 에코포럼글로벌 (EFG), 중국도시개발센터 (CCUD), 중국도시연구협회 (CSUS) 등 3개 중국 파트너들과 이클레이 간에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2. 서로 다른 주제들 간 **연결고리, 기후변화**. 총회 논의 전반을 주도한 것은 기후변화 주제였다. 기후변화는 재원을 끌어모으고, 공통의,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따라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을 하나로 묶어준 주제였다.

2015 이클레이 세계총회 주요 메시지



도시들은 기후변화, 환경 훼손, 자원 감소, 사회적 불평등 등에 있어 점점 더 많은 도전과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그 대응책을 강화하고 가속화하기 위해 2,8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2015년 4월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2015 이클레이 세계총회에 모였다. 대표단을 파견한 지방정부 수만 250개에 달한다.

3. **전 지구적 연맹 부상**. 이번 총회에는 씨포티(C40),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메트로폴리스(Metropolis), R20 기후행동지역 (R20) 등 지방정부 네트워크 조직들이 다수 참가했다. 이는 연말 파리에서 열리는 21차 기후총회에서의 기후 합의 및 이를 넘어서는 노력을 펼치기 위해 힘을 합친 강력한 전 지구적 연맹이 부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4. **손에 잡히는 진전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보고되고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도시들은 단순히 실천을 제안하거나 합의하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진전 사항을 측정하고 보고하는 단계에 이르러있다. 시장협약 (Compact of Mayors)과 유엔의 나즈카 (NAZCA)는 카본 기후등록부 (cCR)의 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도시의 공약을 측정, 보고 및 검증가능하게 하고 있다.

5. **파트너십을 통한 목표 이행**. 총회 중 이클레이는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UCLG),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세계자연연구소 (WRI), 세계도시데이터협회 (WCCD) 등 총 11개 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6. **지역이든 전 지구적 차원이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서만 우리는 전진할 수 있다**. 효과적인 기후 실천활동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방행정은 야심찬 지역 실천활동을 위한 핵심 동맹으로서 시민사회가 가진 잠재력을 완벽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이 벌이는 사업을 지원하고 결합해야만 한다. 연구소, 그리고 서울연구원과 같은 지방의 싱크탱크는 지방행정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한다.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7. **이클레이의 미래 과제**. 총회에서 도출된 아래의 합의 내용들은 이클레이의 미래 과제를 구체화하게 될 것이다.

- 재원에 대한 직접적 접근은 지역 실천활동에 필수적이다. 지방정부들은 첨단 구상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의 성공과 확대는 재원에 대한 직접적 접근에 달려있다. 도시들은 그들의 성과를 계속해서 드러내 보여야 할 것이다. 손에 잡히는 결과라야 그보다 더 규모가 큰 사업을 가능케 할 자릿대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는 지속가능성을 거버넌스 구조와 재정 관리 부문 전체에 녹여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지방정부 지도자들은 각국 정부가 21차 기후총회 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 지역 지속가능성은 정치적 주류가 돼가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도시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 전환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공약이라는 점이다. 지방정부들은 유엔기후변화협약 21차 당사국총회를 위한 구조에서, 2016년 열리는 3차 유엔인간정주회의 (Habitat III) 준비를 위해, 그리고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 채택 및 이행과 관련하여, 국가 및 유엔 수준에서 더 빠르고 보다 더 목표지향적인 기본틀을 갖출 것을 요청한다.

- 지금의 도시화 수준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발전 도시 목표는 신속히 도입돼야 한다. 우리 이클레이 회원들은 지속가능발전 도시 목표를 지지하며, 이를 만장일치로 채택할 것을 유엔에 촉구한다. 25년 이상 이클레이가 해 온 일들은 지속가능발전 도시 목표의 세부목표 이행을 위한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다.

- 이클레이는 새도시의제 (New Urban Agenda)를 위한 모범사례를 수 없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 2016년의 3차 유엔인간정주회의의 결과물에는 전 세계적인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을 위한 생태적 근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포함돼야만 한다. 이 결과물에는 이러한 비전을 통합적인 정책 및 이행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정부 주체로 참여시키기 위한 접근법, 도구 및 메커니즘이 구체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이클레이의 도시 의제: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이행경로 제시

2015 이클레이 세계총회에서 이클레이는 10개의 도시 의제를 출범시키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행동을 위한 총체적 비전을 제시했다. 지방정부 대표들은 100명의 (부)단체장으로 이루어진 고위급 회합으로서 '서울선언' 선포에서 정점에 이른 '시장단 패널' 세션에 참가함으로써 이들 10대 도시 의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시는 높은 인구 밀도, 형편없는 생활 여건, 환경문제 및 빈곤과 같은 다양한 도전과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는 동시에 정보 기술, 에너지 및 상업적 개발의 결합이 제공하는 풍부한 기회의 장이기도 합니다. 도시는 활발한 네트워킹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도시는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성이라는 전 지구적 사안을 다루는 최전선 역할을 해야 합니다.”
- 박원순 / 서울특별시시장 & 이클레이 세계회장

지속가능한 도시

이클레이 회원 도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지향해 나갈 것이다. 이 비전을 이행하기 위해 탄소를 적게 배출하고, 위기와 재난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생산적 및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하고, 다양한 생물과의 공존을 추구하며, 생태교통을 추구하고, 똑똑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종합적이며 상호 연계된 기회들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을 투입할 것이다. 동시에, 지속가능한 경제 및 공공구매를 핵심 수단으로 하여 행복하고 건강하며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다.

“2014년 9월 우리는 유엔사무총장이 주최한 기후정상회의 기간 동안 시장협약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때 우리는 사상 처음으로 이클레이,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씨포티 등 3대 세계지방정부 네트워크가 연합해, 카본 기후등록부를 지방 기후행동을 보고하는 핵심 등록부로 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클레이 회원들이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도시 의제를 이행하는 중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카본 기후등록부를 강화하고, 우리의 공동 노력을 지구 전체로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유르겐 님취 / 독일 본 시장 & 이클레이 세계집행위원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도시

이클레이 회원 도시는 규모나 성장 추세, 개도국인지 산업선진국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도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이클레이가 제공하는 지침과 자원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은 물론 연구자에서 기업에 이르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우리의 삶의 질을 보존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디에터 살로몬 /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장 & 이클레이 유럽 권역 집행위원

생산적이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도시

이클레이 회원 도시는 생산적인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과정을 강화할 것이다. 순 생산 체계(net productive systems)로 전환할 것이다. 그 대신 국제 자원 사슬에 대한 의존과 자원 추출로 인한 도시 주변부 및 배후지역에 대한 부담은 줄여갈 것이다.

“우리의 전반적 발전 전략에서 회복력을 위한 지역 수준의 실천활동이 강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제임스 응수말로 /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시장 & 이클레이 세계집행위원

재난과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회복력 있는 도시

이클레이 회원 도시는 도시의 핵심 기능과 구조,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어떤 외부 충격이나 압박도 흡수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갈 것이다.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최적의 회복력 및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과 계획, 투자를 조정해갈 것이다.

이클레이의 도시 의제: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이행경로 제시



이클레이 세계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출범한 '2015-2021 이클레이 전략계획'은 10개 도시 의제별로 미래의 이클레이 우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의제별 실천 활동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iclei.org/seoul-strategic-plan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도시

이클레이 회원 도시는 모두 (도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를 인지하고 존중하며 토지이용, 개발 계획 및 관련 정책 결정에 통합하도록 할 것이다.

“참으로, 도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를 정부 계획 및 정책 결정 과정에 통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트로이 피카드 / 호주 준달롭 시장 & 이클레이 세계집행위원

똑똑한 도시

이클레이 회원 도시는 사람 중심의,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추진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적 사고(systems thinking)를 도입함으로써 우리의 물리적, 사회적 체계 및 통치 체계를 최적화해 갈 것이다.

“우리의 도시를 ‘똑똑한’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도시 체계 및 자본-물리적 자본이든 사회적 자본이든-에 대한 지식을 더 잘 분석하고 점검하며, 이 지식에 대한 소통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모르텐 카벨 / 덴마크 코펜하겐 기술 & 환경시장

생태교통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

이클레이 회원 도시는 걷기, 자전거 및 대중교통에 우선권을 부여할 것이다. 이는 통합 및 공유를 기반으로 할 것이다. 이로써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도시 공간의 더 공평한 이용을 가능케 하는 교통과 이동방식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이다.

“우리는 승용차 이용에 대한 더 나은 대안을 제공해야 합니다. ‘2015 생태교통 세계축제’는 생태교통 기반의 미래는 실현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생태교통 수단인 대중교통과 도보, 자전거가 접근가능하고 안전하며 매력적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보여줄 것입니다.”
- 팍스 타우 /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시장 & 이클레이 아프리카 권역 집행위원

행복하고 건강하며 포용적인 지역사회

이클레이 회원 도시는 활기차고 깨끗하며 건강하고 포용적이며 평화롭고 안전한 도시를 기준으로 하는 성과 측정을 추구할 것이다. 동시에 시민사회를 참여시키고, 공공공간, 활동적인 이동수단(active mobility), 건강한 환경 등을 위해 예산을 집행해갈 것이다.

“우리는 행복, 삶의 질, 건강, 포용성, 안전, 교육, 문화, 녹색고용, 좋은 거버넌스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시의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 킨레이 도르지 / 부탄 팀부 시장 & 이클레이 세계집행위원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와 녹색구매

이클레이 회원 도시는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각자의 법적, 재정적 수단 및 도시 계획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공공구매를 우리의 구매 표준 관행으로 만들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해 우리의 구매력을 활용,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우리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민간 부문이 더 지속가능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구매력을 활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 페카 사우리 / 핀란드 헬싱키 부시장 & 이클레이 세계집행위원

도시-지역 간 지속가능한 협력

지방정부는 각자의 정책과 계획을 통해, 그리고 동시에 도시와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틀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은, 우리의 활동을 지지하고 안내하며 보완하는 다른 정부 주체들을 참여시키는 더 넓은 범위의 정책을 속에서 추진될 때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 캐시 오크 / 호주 멜버른 시의원 & 이클레이 세계집행위원



전체회의 프로그램: 지속가능성과 기후, 강력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통합

이클레이는 회원들로 하여금 지방행동을 강화하도록 이끌며, 동시에 앞을 내다보고 미래의 도전과제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와 같은 이클레이 임무의 핵심 내용들이 총회 기간 내내 강조됐으며 전체회의 논의의 중심을 이루었다. 전체회의에서는 고위급 토론이 이루어져,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들은 물론 다양한 파트너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을 하고 공통의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바누아투 포트빌라 울리히 솜토 시장

바누아투 포트빌라 시의 울리히 솜토 (Ulrich Sumptoh) 시장은 개막식 연설에서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야심찬 공약을 주문했다. 이클레이와 그 파트너들은 국제사회가 목표를 상향하고 협약 합의를 위해 행동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에도 바누아투를 포함한 군소도서 개도국들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가장 최근 사례는 2015년 3월 태풍 팜(Pam)으로 인한 피해이며, 이때 포트빌라도 피해를 입었다.

“기후 변화의 불확실성 속에서 앞으로 더 강력한 태풍이 불어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태풍 팜과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불러올 손실은 향후 우리의 발전을 수년 역행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 지구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있도록, 야심찬 목표를 위한 더 많은, 더 진지한 공약을 촉구합니다.”

– 바누아투 포트빌라 울리히 솜토 시장

요르겐 랜더스 교수 (BI 노르웨이 경영대학원, 기후전략 전공)는 개막 전체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2052년까지의 도시화 흐름이 야기할 불편한 전망을 제시했다. 기후변화 타개를 위한 지방정부의 당면 과제들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시장 100명이 총회장에 집결했다. 이들은 단상에 올라 함께 이클레이 '서울선언'을 채택했다. 이클레이 회원들이 지난 25년간 이루어낸 성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이 선언은, 지역 리더들이 향후 수년 간 '2015-2021 이클레이 전략계획'을 동시에 참고하며 수행해야 할, 도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우선적 실천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선언을 통해 우리는 상황 개선을 위한 더 야심찬 목표를 채택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 리더 및 다양한 주체들을 참여시키며, 지속가능성을 위한 장기 전략 및 계획을 위해 공공 재원을 집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 남아공 더반 제임스 응수말로 시장 & 이클레이 수석 부회장

'서울선언'은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하는 지방정부들을 위해 만들어진, 실천을 위한 강력한 기본틀에 해당한다. '서울선언'은 지방정부 리더들에 권한을 부여할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카본 기후등록부와 시장협약과 같이, 실천할 준비가 돼 있고 의지가 있는 지방정부 리더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클레이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일반인의 실천 수준을 높이면 강력한 지도력이 가시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실천을 뒷받침할 도구를 그들 손에 쥐어주어야 합니다.”

– 캐나다 밴쿠버 안드레아 라이머 부시장



캐나다 밴쿠버 안드레아 라이머 부시장



전체회의 프로그램: 지속가능성과 기후, 강력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통합

'서울선언'은 2020년 이후 적용될 국제 기후체제 수립을 앞둔 결정적 시기에 이클레이가 추구해야 할 우선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이클레이는 1990년 이후 지금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국가 당사자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왔고, 또한 회원들에게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을 독려했다.

국제 기후 협상가, 도시 네트워크, 그리고 지방정부는 21차 기후총회와 그 이후까지를 포괄하는 시장 포럼 (Mayoral Forum) 및 고위급 회담 (High Level Dialogue)에 발표자로 참가해왔다.

모르텐 카벨 (코펜하겐 시장)은 21차 기후총회에서 오래 지속될 공동의 합의를 도출할 것을 당사국들에 다시 한번 촉구했다. 네덜란드 외무부 마이클 렌테나 기후 대사는 21차 기후총회가 지방정부 실천활동 및 목표를 논의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21차 기후총회는 국제 기후체제를 전진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회의를 의미 있는 회의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방정부 실천활동과 야심찬 목표를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상호 교환하고 국제협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담은 의미 있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 네덜란드 외무부 마이클 렌테나 기후 대사

전 지구적 기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도시 전환은 필수 과제이다. 그리고 도시 전환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원은 금융기구 및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쪽으로 흘러가야 한다. '도시의 미래'를 위한 재정 설계' 주제의 전체회의에서는 국제기구가 지방정부에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민간 자본이 도시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을 탐색했다.

“도시는 지구 및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에 대한 재정 지원은 결정적입니다. 도시를 바로잡을 수 있다면, 이는 지속가능발전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구환경기금(GEF)이 미화 1억 달러짜리의 '지속가능한 도시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출범시키는 이유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방정부가 지속가능성을 위한 장기 원칙들을 도시 설계 및 이행 계획에 통합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 지구환경기금 나오코 이시이 사무총장

총회에서는 포스트-2015 발전 의제 및 3차 유엔인간정주회의가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추구되도록 하는 데 있어 기회가 되거나 도전과제가 될 요소들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유엔인간정주회의 후안 클로스 사무총장은 지속가능발전 도시 목표를 향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인지를 설명했다. 그는 향후 20년을 위한 새도시의제 (New Urban Agenda)를 준비함에 있어 중앙 및 지방정부를 위한 지침이 될 내용을 3차 유엔인간정주회의의 (2016년 10월, 에콰도르 키토)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설명했다.

“지금의 도시화 방식을 바꾸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재원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광범위한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3차 유엔인간정주회의에서는 새도시의제로 불리는 전략적 도시화로의 길을 추구할 예정입니다.”

– 유엔인간정주회의 후안 클로스 사무총장



네덜란드 외무부 마이클 렌테나 기후 대사



지구환경기금 나오코 이시이 사무총장



유엔인간정주회의 후안 클로스 사무총장



지역 리더들, 이클레이 거버넌스를 위한 책임을 떠맡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야심찬 노력으로 명성이 높은 세계적 지역 리더 다수가 새로 출범한 이클레이 거버넌스 조직의 임원으로 선출됐다. 이들은 2015 이클레이 세계총회에 참석하여, 하나의 이슈로서의 지속가능성이 시장 집무실까지 도달했음을 총회 참석자들에게 각인시켰다.



2015~2018 이클레이 신임 세계집행위원 발표



이클레이 전 세계회장 데이비드 캐드먼과
신임 회장 박원순 시장

전 회장 데이비드 캐드먼 (2007~2015) 회고

“이클레이 세계집행위원회장으로 재직했던 것은 저로서는 영광이자 특권이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이클레이는 회원 수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도시와 마을, 지역이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회원 지방정부들은 우수 사례를 배우기 위해 이클레이 사례연구 보고서를 활용했습니다. 이클레이 회의를 통해 네트워킹을 도모했습니다. 또는 카본 기후등록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회원 지방정부들은 완전한 지속가능성으로 나아가는 각자의 여정에서 이클레이의 지원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이클레이의 통치 기구들은 이클레이의 전략적 방향을 결정지를 책임을 지고 있다. 이클레이 세계집행위원회, 권역별 집행위원회 및 세계이사회-권역별 집행위원 전원으로 구성-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선출직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후자는 권역별로 3년마다 이클레이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된다.

최근 선거는 2015년 연초에 마무리됐으며, 4월 서울에서 세계이사회 및 세계집행위원회 1차 회의를 각각 개최했다.

이클레이 세계이사회 및 세계집행위원회 임원 전체 명단은 이 보고서 21쪽~23쪽 참고.

이클레이 신임 회장 선출

4월 8일 개막식에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이클레이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박 시장은 이날 개막식에 앞서 열린 세계집행위원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취임식에서 박 시장은 서울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도시들에서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세계집행위원회 수석부회장으로 다시 선출된 제임스 응수말로 남아공 더반 시장 역시 수년 간 이클레이 회원으로서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다.

“저는 이클레이와 회원 지방정부들이 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성취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2015 이클레이 세계총회는 그 멋진 시작점이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엄중한 과제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관적인 자세로 미래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 제임스 응수말로 남아공 더반 시장 & 이클레이 세계집행위원회 임원

이 외에도 미구엘 앙헬 만셀라 멕시코시티 시장과 페카 사우리 핀란드 헬싱키 시 부시장이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전문가, 연구자 및 시민사회를 포괄하며 파트너들과의 논의를 확장



이클레이 세계총회에 연구자 심포지엄 및 도시의자연 포럼을 연계시키는 전통이 올해도 이어졌다. 또한, 총회 프로그램 전후로 이클레이 또는 이클레이 파트너 기관이 주최한 다양한 부대행사가 처음으로 개최돼, 특별 주제에 대해 상세한 논의가 펼쳐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2015 도시의자연 포럼: 생물다양성을 위한 지역 실천활동

2015 도시의자연 포럼에는 총 20개 지방정부가 참가했으며, 학계와 개발기구도 함께 했다. 8개의 주제별 회의에서는 생물다양성과 물이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를 주제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 포럼은 안산, 김포, 수원, 인제 및 벨스만델라베이 자치정부의 '더반협약: 생물다양성을 위한 지방정부' 서명으로 막을 내렸다. 이로써 지역 차원에서 생물다양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지방정부의 숫자가 더 늘어났다. 더반 협약 서명으로 이들 도시는 다양한 정책 도구 및 접근법을 활용해 생물다양성을 주류화하고, 인식증진을 도모하며,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모으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 파트너 및 국제 파트너들과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다짐을 공표했다.

'2015 도시의자연 포럼' 보고서는 다음 웹사이트 참고:

www.cbc.iclei.org/event-reports



도시의자연 포럼 도중 5개 도시 '더반협약: 생물다양성을 위한 지방정부'에 추가 조인

4차 국제 도시 연구자 심포지엄

이클레이 국제 도시 연구자 심포지엄은 이클레이 세계총회마다 열리는 4일간의 행사이다. 지난 심포지엄들이 연구와 실무 간의 차이를 강조했다면, 이번엔 서울에서 열린 심포지엄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싱크 탱크, 민간 컨설팅 기관, 그리고 그 외 다양한 참가자들은 발표를 통해 연구자들이 지방정부 실무자들의 필요에 맞추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다음 단계가 도시 실무자들이 연구기관의 업무 추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공동 연구라는 데 모두 동의했다. 이를 위해 참가 연구자들은 5차 심포지엄은 주최 도시가 선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조직돼야 할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

<http://worldcongress2015.iclei.org/en/researchers-symposium/>

시민사회포럼

시민사회포럼은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방정부를 한데 모은, 2015 이클레이 세계총회의 대표적인 지역 행사였다. 이 포럼을 위해 한국의 관련 NGO들과 서울시를 주축으로 하는 특별 조직위원회가 구성됐다. 당일 포럼에는 지방정부와 NGO 등에서 150명 이상이 참가했다. 포럼은 '도시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민사회 리더십'을 주제로 열렸으며, 에너지 전환, 농업, 생물다양성, 교통,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거버넌스 등 도시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주제에서의 시민사회의 역할을 모색했다. 포럼은 '도시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민사회 제안문'을 채택하면서 막을 내렸다. 이 제안문은 도시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의 파트너십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제안문 전문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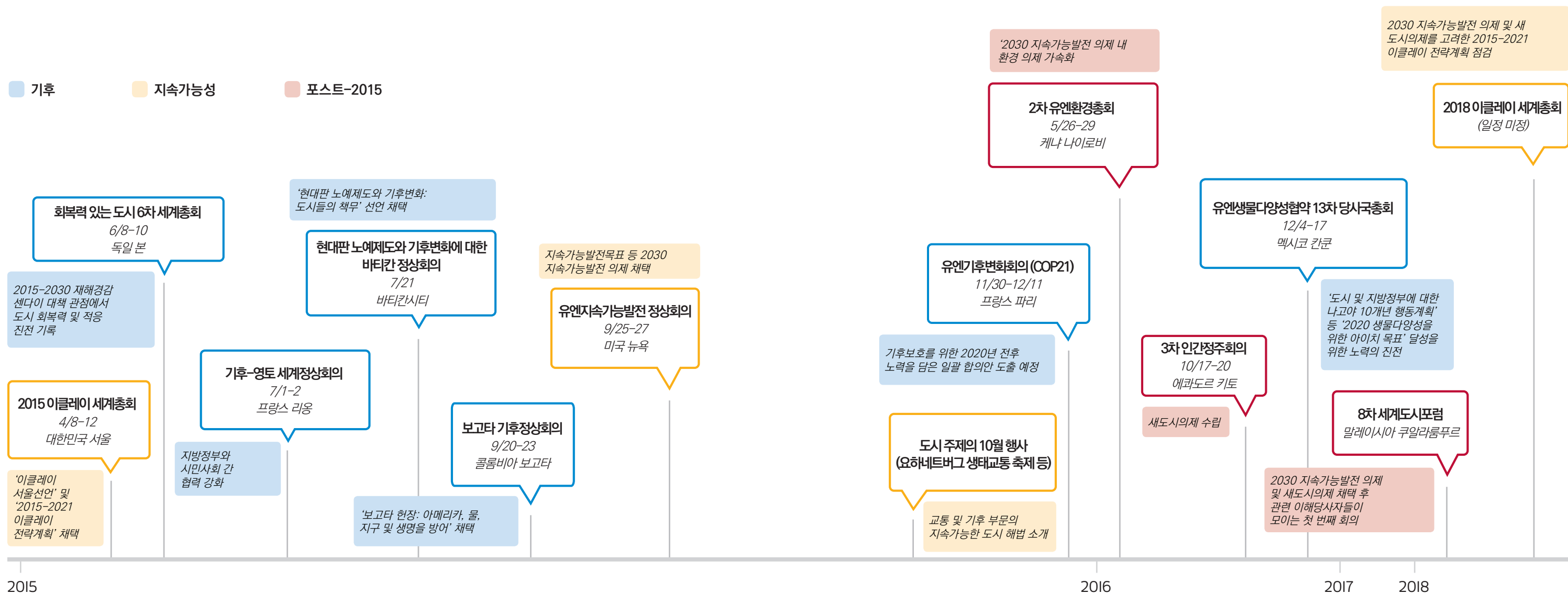
worldcongress2015.iclei.org/en/program/civil-society-forum/

주요 부대행사

- 씨티넷 부대행사: 적정가의 주택
- 도시 기후 재정 리더십 연맹 회의
- 생태교통 및 기후변화: 21차 파리 기후총회에 거는 기대 및 기여사항
- 글로벌 도시 지역 에너지 구상: 아태지역 사업 출범 및 국제 트레이닝 세션
- 저탄소도시 랩: 공식 출범
- SE4ALL 빌딩 효율성 가속제: 트레이닝 세션
- 유엔환경계획-IIED 부대행사: 회복력 있고 자원 효율적인 도시
- 유엔환경계획-세계도시데이터협회 부대행사: 지속가능성 도시 지표
- URBIO 워크숍
- 세계도시데이터협회: ISO 37120 및 세계도시데이터협회 소개



2015-2018 이클레이 주요 일정 및 성과목표



포용적이고 야심찬 기후체제 안에서 지방정부들, 정부 주체 (governmental stakeholders)로 참여

저탄소의, 기후 회복력 있는 발전을 확보하고 재앙적 수준의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2015년 12월 파리회의가 도출할 기후 패키 지에는 새 국제 기후 체제에 대한 관련 주체 모두의 참여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서울에서는 36개 도시가 시장협약에 조인했고, 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행동계획이 출범했다.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목표를 보고하기 위한 주요 플랫폼이자 나즈카(NAZCA) 플랫폼에 대한 정보 제공 기반으로 카본 기후등록부를 지정한 것이다.

이클레이는 또한 야심찬 여러 부문을 아우르는 포용적인 실천활동에 대한 지방정부의 잠재력을 탐색하기 위해 전환행동프로그램(TAP)을 출범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기후사업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자들의 재원을 늘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지속가능발전 도시 목표는 현재의 전 지구적 도시화 수준을 고려할 때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클레이는 17개의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 특히 도시와 인간 정주공간을 위한 11번 목표의 채택을 환영하는 바이다. 지난 25년간 이루어진 이클레이 활동은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좋은 예가 돼 줄 것이다. 2030 의제는 야심찬 개척자들로부터 모두가 영감을 얻을 때, 뒤처지는 이 없이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정상으로의 경주가 될 것이다.

오늘의 지역 리더들이 내일의 표준이자 혁신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격려를 얻고 역량을 배양할 기회를 얻는다면, 이 의제를 통해 우리는 모두가 함께 하는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할 수 있다. 1992년의 지방의제21, 2012년 리우+20에서의 다층적 거버넌스, 그리고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속가능한 도시 미래를 이루내기 위한 초석을 이룬다.

2016년부터 시작될 유엔 3차 인간정주회의 및 새도시의제

이클레이는 새도시의제를 위한 수많은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 개최될 유엔 3차 인간정주회의의 결과물에는 지구촌 모든 이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위한 생태적 토대를 확보하게 할,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이라는 비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정부 주체로서의 지방정부를 참여시키는 접근법과 도구, 기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통합적 정책과 이행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비전이 구현될 수 있다.

"세 가지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네트워크를 강화하십시오. 둘째, 12월 파리에서 산업국과 개도국 모두에 적용될 의미 있는 기후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십시오. 셋째, 내년 키토에서 열릴 3차 유엔인간정주회의를 위해 새도시의제를 규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이 푸른 지구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도시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한 나라, 혹은 한 도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 시장이 선두에 서고, 도시가 모두 나서서 다루어야 할 전 지구적 도전과제입니다."

- 박원순 서울특별시시장 & 이클레이 세계회장



파트너십 및 상호 이해 강화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시장, 지방정부, 시의원, 민간부문, 기업가, 학계, 개인 및 비정부기구 간에 구축된 협력관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세계총회는 기존의, 그리고 새 파트너들을 한자리에 모아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였다.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는 이클레이의 과업 및 회원들의 목표 달성을 위한 열쇠이다.

양해각서 체결 기관

- 수직농장협회 (Association of Vertical Farming, AVF)
- 지구환경전략연구소 (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 IGES)
- 세계자연보전연맹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
-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UCLG)
- 도시 생물다양성 및 계획을 위한 국제 학술 네트워크 (International Network on Urban Biodiversity and Design, URBIO)
- 세계도시데이터협회 (World Council on City Data, WCCD)
- 세계자원학회 (World Resources Institute, WRI)

양해각서 체결 중국 기관

- 중국도시개발센터 (Chinese Center for Urban Development, CCUD),
- 중국도시연구협회 (Chinese Society for Urban Studies, CSUS),
- 글로벌 에코-포럼 (Eco-Forum Global, ECG),
- 광저우 도시혁신연구소 (Guangzhou Institute for Urban Innovation, GIUI),

타 도시 네트워크와의 파트너십

총회에는 씨포티,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메트로폴리스, R20 등 지방정부 네트워크가 다수 참가했다. 이는, 파리에서 개최되는 21차 기후총회에서의 기후 합의 및 그 이후까지의 대변활동을 위한 강력한 도시 네트워크 연맹이 생겨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러한 흐름은 36개 도시가 시장협약에 새로 조인함으로써 더욱 더 강화됐다. 시장협약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가장 야심찬 세계 도시 리더들의 연합이다. 이 외에도, 총회에서는 이클레이와 관련 파트너 간 양해각서가 총 11개 체결됐다.

중국 내 파트너들과의 협력 강화

이번 총회는 이클레이가 중국 도시들과의 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기울여 온 그 동안의 노력이 잘 드러난 자리였다. 2012년 동아시아 사무국이 문을 연 이후로 이클레이는 중국 내 입지를 키우고, 핵심 중국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지방정부들과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온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함으로써 이클레이는 중국 내 입지를 더욱 더 강화함은 물론, 중국 도시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더 진전시키기 위해 총회는 관련 전문가들과 중국 도시들을 초청하여 ‘중국의 도시: 도전과제와 기회’를 제목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유형의 중국의 도시화에 대한 발표자들의 통찰력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지방정부 입장에서 발표에 나선 광저우, 둥구안 및 구이양 시 고위급 대표들은,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누리 고 있지 못한 인구의 필요에 부응할 목적으로, 사회적 안정을 촉진하고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며 토지이용, 자원 효율성 및 환경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무엇을 해왔는지를 각자 소개했다.



지도 반 베긴 이클레이 사무총장이 글로벌 에코-포럼 (Eco-Forum Global, ECG) 대표 알렉스 장, 중국도시연구협회 (Chinese Society for Urban Studies, CSUS) 하 이롱 리 부국장 및 광저우 도시혁신연구소 (Guangzhou Institute for Urban Innovation, GIUI) 안 판 부사무총장과 각각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이클레이 신규 네트워크 & 프로그램 출범

총회에서는 신규 네트워크와 신규 프로그램이 출범해 특정 주제를 위한 네트워킹과 학습 모임에 참여해 조직적인 교류를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이클레이 회원들에게 제공했다.

도시식량

도시식량은 도시 농업과 회복력 있는 도시 식량 체계를 위한 이클레이 네트워크이다. 총회에서는 포르투갈 알마다, 스웨덴 린코핑, 터키 세페리히사르 등이 창립도시로 네트워크 참여를 결정했다. 모든 회원들에게 열려 있는 네트워크이며, 문의사항은 다음의 이메일을 이용해 전달할 수 있다: cityfood@iclei.org

“그동안 우리는 식량체계 문제를 다루고 있는 도시들이 경험과 우수사례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했습니다. 도시식량 네트워크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훌륭한 통로입니다.”

-포르투갈 알마다 카타리나 프레이타스 국장

100% 재생에너지 도시 네트워크

이클레이는 전 세계 지방정부들의 100% 재생에너지 구현을 지원할 목적으로 100% 재생에너지 글로벌 캠페인 (Global 100% RE)과 협력해오고 있다. 100% 재생에너지 도시 네트워크는 이 분야에서 선두에 서 있는 이클레이 회원들, 그리고 100% 재생 에너지가 무엇이며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하고, 또한 이 분야에서 리더로 우뚝 서기를 원하는 도시들로 구성될 것이다. 이 네트워크는 4월 11일 개최된 주제별 회의에서 출범했다. 벤쿠버, 말뫼, 멜버른 등이 이 네트워크에서 선도 역할을 맡기로 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www.iclei.org/lowcarboncity/100RE

지속가능 공공구매 세계 선도도시 네트워크

서울특별시와 이클레이는 지속가능 공공구매 세계 선도도시 네트워크를 결성하기로 했다. 이 네트워크의 목적은 이 분야 선도도시들 간의 상호 교류 및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공공구매를 이행할 수 있는 도시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로써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로의 이행을 추동하고자 한다. 서울특별시와 케이프타운, 켄트, 로테르담 등이 창립도시로 참여했다. 이들 도시는 실천을 위한 야심찬 목표 수립, 명확한 이행 전략 개발, 수행 평가 실시 등을 통해 지속가능 공공구매를 실제로 이행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모범 도시가 될 것을 다짐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sustainable-procurement.org/network-exchange/global-lead-cities/>

소규모 도서국가를 위한 이클레이 프로그램

이클레이는 소규모 도서국가를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군소도서 개도국들(SIDS)이 국제무대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기후변화, 자원고갈, 인구성장 등과 연관된 충격과 압박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바누아투 울리히 솜토 포트빌라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조치가 이루어져 재앙 수준의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가진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 간에 굳건하고 건설적인 파트너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연말 파리 총회에서 이클레이를 통해 군소도서 개도국들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전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목소리를 내고, 또한 전 세계 중앙정부들의 약속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바누아투 포트빌라 울리히 솜토 시장



이클레이 세계 전략의 지역화: 2015-2018 이클레이 한국 전략계획

2015 이클레이 세계총회는 세계 전략의 지역화 측면에서 중대한 유산을 남겼다. 전 지구적 노력이 '2015-2021 이클레이 전략계획' (이클레이 서울계획) 및 이클레이 '서울선언'의 기반으로 자리잡는 가운데, 이클레이의 54개 한국 회원 지방정부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2015-2018 이클레이 한국 전략계획을 채택하여 세계 전략을 지역 차원의 우선 과제로 도입하는 모범을 보였다.



염태영 수원시장(이클레이 세계집행위원)이 개막 전체회의에서 2015-2018 이클레이 한국 전략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5-2018 이클레이 한국 전략계획은 실천 중심의 계획으로서, 한국 회원들은 이를 통해 명확한 목표를 수립하고, 추후 이행 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하여 회원 도시들의 전략계획 이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

총회 개최국 대한민국의 이클레이 회원 도시들은 도시 지속가능성을 위한 약속을 지역화하여 선포함으로써 전 세계 지방정부들의 귀감이 되었다.

2015-2018 이클레이 한국 전략계획은 총 10개의 의제를 담고 있는 '2015-2021 이클레이 전략계획'과 연계해 준비됐다. 한국 전략계획은 연례 회원 정기회의에서 초안이 집중 논의됐으며, 이후 회원 도시들은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연계한 지속가능성 평가, 기후 지역 실천활동, 지속가능한 소비, 지자체의 환경 성과 10% 향상 등의 과제를 우선적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해냈다. 이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각 과제는 행동계획을 담고 있다. 도시들은 이를 토대로 각자의 지역에서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갈 것이다. 한국 전략계획은 지방의제21추진기구 등 지역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이행될 예정이다.

총회 기간 중 '지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자체-시민사회 협력방안 모색 라운드테이블'을 제목으로 한국회원 특별세션이 개최됐다. 참석한 회원 지방정부들은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제시하면서 한국 전략계획을 각자의 지역에서 어떻게 이행해갈 것인지를 발표했다. 일례로 대구광역시 박기환 환경정책과장은 시의 환경 성과 10% 향상을 위해 재생에너지원 증가, 자전거 부담율 확대, 전기자동차에 인센티브 부여, 녹지 확대 등의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행동계획을 총회에서 소개함으로써 한국의 회원들은 전 지구적 수준에서 수립된 목표와 우선과제를 각자의 도시에서 손에 잡히는 결과물로 바꿔내겠다는 목표와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총 9명의 회원 지자체장이 한국회원 특별세션에 참석했다.

떠오르는 주제들, 기존의 논의를 강화



총회 프로그램에 포함된 70개 이상의 회의에서는 다시 부상하거나 새롭게 등장한 주제들이 폭넓게 논의됐다. 이클레이 세계총회에서 최초로 논의된 주제도 다수를 차지한다. 이는 이클레이 회원들의 기본적인 여건, 관심사 및 필요사항들이 발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폐막 총회는 여성 패널로만 진행됐다. 사회를 맡은 모니카 짐머만 이클레이 사무부총장은 총회 결과물 가운데 여성 리더십 관련 내용을 다수 강조했다.

총회 프로그램 전문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
: worldcongress2015.iclei.org/en/program

여성 리더십

총회 중 열린 '지속가능발전과 여성 리더십' 주제의 회의에서는 여성리더의 당면 도전 과제, 거버넌스 구조에서의 여성의 역할, 젠더를 고려한 도시계획 등의 주제가 활발히 논의됐다. 호주 멜버른 시의 캐시 오크 의원은 폐막 총회에서, 이클레이가 세계집행위원회에 여성 리더 주제의 직능직을 포함시킬 것, 과정 및 거버넌스를 검토하여 책임자급 직위에 더 많은 여성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제안했다.

화석연료 투자 회수

뉴질랜드 더니든 시의 진티 맥타비스 의원은 '도시의 미래를 위한 재정 설계' 제목의 전체회의에서 더니든 시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화석 연료 투자 회수 문제를 강조했다. 지방정부와 기금 운용 기관들에게 화석연료 산업을 투자 후보에서 제외시키고 더 이상의 화석연료 채굴을 포기할 것을 요청했다. 44개 도시가 이미 회수 정책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이클레이 회원 도시들도 포함돼 있다. 더니든은 미국 도시를 제외한 전 세계 도시들 중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두 번째 도시이다.

공유도시

'공유도시 : 소유에서 접근으로'라는 제목의 세션이 개최돼, 공유도시 부문에서 서울시가 국제적으로 찬사를 받은 활동들이 소개됐다. 참가자들은 지구촌 사회가 공유도시 사업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는 공유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및 환경적 효과 측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도시 생산성

총회 중간에 '도시 생산성' 주제의 워크숍이 개최됐다. 도시 생산성은 도시 내 지역사회, 지구, 기반시설, 서비스 체계 등이 자원, 사회 발전, 부 등을 생산하는 순 생산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 워크숍에서는 두 개의 사례연구를 대상으로 도시 생산성을 위한 기본틀을 시험하는 시험 연습 활동이 두 종류로 진행됐다. 도시 생산성을 위한 기본틀은 '미래의 사례(The Next Practice)'가 이클레이와 공동으로 개발한 것이다.



도시 생산성 워크숍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민간 부문 및 지방행정의 경제발전 담당 공무원들을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에 참여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활동에 참여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영감의 원천, 서울시

서울시는 전 세계 도시들에, 그리고 특히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도시들에 영감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다. 4월 10일 개최된 전체회의, '서울의 날'에서 서울시는, 1950년대 전쟁으로 황폐화된 도시에서 지방 기후행동 선도 도시로 전환을 이루어내는 등 급성장과 도시화 문제를 시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다루어 왔는지를 총회 참가자들과 공유했다.



총회 참가자들은 현장 워크숍의 일환으로 한국 최초 및 최대의 에너지 자립 건물인 서울에너지드림센터를 방문했다.

"기후변화 극복 및 지구 생태계와 자원 보전을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도시는 세계를 재생에너지로 가동되는 지속가능한 발전 경로에 올려놓을 수 있는 중요 주체입니다. 서울은 이러한 도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도시들에 영감을 주는 사례입니다."

-세계자연기금 마르코 람베르티니 사무총장

서울시는 유례없는 도시 성장 및 인구 증가로 혁신적인 정책과 해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도전은 역으로 서울시가 신흥 도시의 새 물결을 이끄는 선도 도시가 될 기회로 작용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세계환경도시상 (EHCC) 2015년 수상 도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서울시는 캐나다 밴쿠버, 남아공 케이프타운 등에 이어, 세계자연기금(WWF) 및 이클레이 공동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 상의 역대 세 번째 수상 도시가 됐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1,000만 톤 감축, 전기자급율 20% 달성 등을 목표로 하는 야심찬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이 심사위원단의 높은 지지를 이끌어냈다. 서울시는 그 첫 번째 목표를 2014년 6월, 당초 예정보다 6개월 앞서 달성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러한 지도력 및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서울시는 현장 워크숍을 열어, 시 전역에 걸친 14개 이상의 사업지에 총회 참가자들을 초청했다. 이 자리를 통해 워크숍 참가자들은, 교통에서 지역사회 참여에 이르는 다양한 부문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야심찬 목표 및 세부 환경목표를 서울시가 어떻게 달성했는지를 배울 수 있었다.

한편 서울시는 총회 기간 중 도시 대 도시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키토, 요하네스버그, 암만, 프라이부르크, 레이카비크 등 총 14개의 지방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한, 환경 인프라 개선을 크게 염두에 두고 있는 총 7개 도시 및 1개 지방정부 협회가 글로벌 도시정책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정책 조언 및 기술 지원을 제공받기로 했다.



서울특별시시는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5 세계환경도시상을 수상했다.

서울의 약속



'서울의 약속'은 미래 세대를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천만 서울 시민의 공동의 의지를 담고 있다.

4월 10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의 민간단체 및 기업 대표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대한 조치를 단행할 것을 다짐하며 '서울의 약속'을 발표했다.

"'서울의 약속'은 제 가슴을 뛰게 합니다. 이클레이 회원 지자체장들이, 각자 가진 강점과 한계, 도전과제 범위 안에서 각자의 지역에서 유사한 구상을 도모할 의사가 분명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말레이시아 세베랑페라이 자치구 마이무나 모 사리프 의장

총회에 참가 중인 세계의 시장 및 지방정부 대표들이 박원순 시장과 함께 무대에 올라, '서울의 약속'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목표 달성에 성공하기를 기원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의 약속'이 전 세계 도시들을 자극하여 유사한 구상이 이들 도시에서 채택되기를, 그리하여 전 세계에서 변화의 물결을 촉발시킬 '세계의 약속'을 서울시와 함께 만들어낼 수 있기를 희망했다.

지역 리더들의 행진

'서울의 약속' 발표에 이어 박원순 시장, 지노 반 베긴 이클레이 사무총장 등은 지방정부 공무원, 총회 참가자, 그리고 서울 시민들과 함께, 지방행동을 위한 구상이 가진 힘, 그리고 지역의 리더와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거리행진을 벌였다.



한시적으로 차없는 거리로 선포된 DDP 바깥 도로를 따라 지역 리더들의 행진이 벌어졌다.

서울의 약속이란?

- 에너지, 도시 계획 등 도시 시스템의 10개 구성요소를 아우르는 총 36개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 문서는 천만 서울 시민이 동의한 합의문도 포함하고 있다.
- 각 과제는 기존 자치구 단위의 완화 및 적응 정책과 연계돼 있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전략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2020년 이후의 새 국제 기후 체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서울의 약속' 목표 연도는 2020년과 2030년이다.
- 시민, 기업 및 지방행정을 위한 별도의, 그러나 상호 보완적인 행동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 각 과제 안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일반에 공개된다. 성과 지표는 쌍방향의 직관적 양식(intuitive format)을 통해 전시되고 매년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서울의 약속'
내려받기



www.iclei.org/promiseforseoul



총회, 만남과 교류의 장이 되다

사람들은 행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총회장이나 회의장 바깥에서 다른 참가자들을 비공식적 만남을 통해 알게 됐을 때 생기는 것 같다고 말하곤 한다. 이번 총회도 다르지 않았다. 참가자들이 타 도시 대표단과 만나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셀 수 없이 제공하여 이클레이 네트워크가 확대됐다는 느낌을 가지게 했다.

이클레이 라운지

이클레이 라운지는 회의 전후, 그리고 휴식시간 동안 소규모 그룹 대화를 위한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여, 참가자들과의 네트워킹을 위한 이상적인 만남의 장소로 제 역할을 다 했다.

환영 만찬 & 교류의 밤

4월 9일 서울 세빛섬에서는 내외빈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환경도시상 시상식을 위한 특별 만찬이 개최됐다. 4월 10일에는 교류의 밤 행사가 열려 총회 참가자들이 서울시청 신청사에 초대됐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다른 총회 참가자는 물론, 총회 주최 도시의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청 공무원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다.

주최도시 서울에 주는 선물

이클레이 세계총회는, 참가자들이 주최도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준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2015년의 선물 주제는 업사이클링이었다. 선물 증정식에서는 헌 옷과 보석, 예술작품, 공예품, 장식물 등으로 재활용한 독특한 선물 총 130개가 증정돼, 행사장 근처에 야외 전시된 예술작품과 공예품 설치물과 동시에 전시됐다.

도시포스터전

도시포스터전에는 우수 도시 사례가 60점 이상 전시돼 참가 지방정부 대표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었다. 참가 도시 대표단은 각자의 포스터를 만남의 장소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관람객들과 예기치 않은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전시된 포스터는 다음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www.iclei.org/cityposter2015

친환경 행사를 위한 노력

주최 기관들은 2015 이클레이 세계총회를 친환경 행사로 개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대중교통 무료 탑승권이 배부돼 등록을 마친 참가자는 모두 행사장까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었다. 나이가 많은 지방정부 관리 가운데는 평생 처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 또한 채식의 날이 기획돼 육식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자칫해 온 재사용 가능한 물병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주최 기관들은 인쇄물을 가능한 한 적게 사용하고자 노력했다.



이클레이 라운지



교류의 밤 공식 행사가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열렸다.



도시포스터전

2015-2018 이클레이 세계이사회 출범



2015-2018년 3년 임기의 이클레이 세계이사회가 새로 구성돼 그 첫 번째 회의를 총회에서 개최했다. 이클레이 세계이사회는 전 세계 9개 권역에 걸친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를 대표하며, 이클레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자 감독 기구로 기능하고 있다. 이사회 위원 전체 명단은 아래와 같다.



박원순 (Won Soon Park)
세계회장

대한민국 서울특별시(Seoul) 시장
*대표 직능: 저탄소도시 / 기후변화세계시장
협의회 (WMCCC, 의장)



Miguel Ángel Mancera
부회장

멕시코 멕시코시티(Mexico City) 시장
*대표 직능: 지방-중앙 정부 관계 및 통합 /
회복력 있는 도시 전략



James Nxumalo
수석 부회장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Durban) 시장
아프리카 권역 대표
*대표 직능: 회복력 있는 도시 전략



Pekka Sauri
부회장

핀란드 헬싱키(Helsinki) 시 부시장
유럽 권역 대표
*대표 직능: 녹색도시경제



Jürgen Nimptsch

독일 본(Bonn) 시장
*대표 직능: WMCCC
(UNFCCC 이클레이 특사) /
카본 기후등록부



염태영 (Tae-young Yeom)

대한민국 수원(Suwon) 시장
동아시아 권역 대표
*대표 직능: 생태교통 전략



Gustavo Petro

콜롬비아 보고타(Bogota) 시장
*대표 직능: WMCCC (부의장) /
저탄소 도시 전략



Mauricio Rodas Espinel

에콰도르 키토(Quito) 시장
중남미 권역 대표
*대표 직능: 지속가능한 도시 특사
(도시 SDG, Habitat III, 타 네트워크
조직들과의 관계 등)



Cathy Oke

호주 멜버른(Melbourne) 시의원
오세아니아 권역 대표
*대표 직능: 지방-중앙 정부 관계 및 통합



Alex Zhang

중국 예코프럼글로벌 사무총장
*대표 직능: 이클레이 중국
전략 특사



Frank Cownie

미국 디모인(Des Moines) 시장
북미 권역 대표



Kinlay Dorjee

부탄 팀부(Thimphu) 시장
남아시아 권역 대표



Maimunah Mohd Sharif

말레이시아 세베랑페라이(Seberang Perai)
시의회 의장
동남아시아 권역 대표



Troy Pickard

호주 준달럽(Joondalup) 시장
*대표 직능: 도시 생물다양성 전략



2015-2018 이클레이 세계이사회

이클레이 세계이사회는 아래의 권역별 집행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이클레이 아프리카



James Nxumalo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Durban) 시장



Abel Langsi
카메룬
바푸(Bafut) 시장



Mpho Parks Tau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 시장



Diriba Kuma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 시장



Martin Kizack Moyo
짐바브웨
불라와요(Bulawayo) 시장

이클레이 중남미



Antonio Carvalho Gomes
브라질
이투(Itu) 시장



Mauricio Rodas Espinel
에콰도르
키토(Quito) 시장



Jose Gali Fayad
멕시코
푸에블라(Puebla) 시장



Jorge Herrera
코스타리카
산라파엘데헤레디아 (San Rafael de Heredia) 시장

이클레이 북미



Matthew Appelbaum
미국
볼더(Boulder) 시장



Frank Cownie
미국
디모인(Des Moines) 시장



Mark Brostrom
캐나다
에드먼턴(Edmonton) 시
환경계획&지속가능발전국장



Pam O'Connor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Santa Monica) 시
부시장



Cindy Toth
캐나다
오크빌(Oakville) 시
환경정책국장

이클레이 동아시아



정효성
대한민국
서울특별시(Seoul) 부시장



Daisaku Kadokawa
일본
교토(Kyoto) 시장



Shyh-Fang Liu
대만
카오슝(Kaohsiung) 시 자문관



염태영
대한민국
수원(Suwon) 시장



Alex Zhang
중국
에코포럼글로벌 사무총장

2015-2018 이클레이 세계이사회



이클레이 동남아시아



Pak Hugua
인도네시아
와카토비 리젠시(Wakatobi Regency) 시장



Maimunah Mohd Sharif
말레이시아
세베랑페라이(Seberang Perai) 시의회 의장



Leticia O. Clemente
필리핀
바기오(Baguio) 시 예산담당관

이클레이 남아시아



Dora Mani Paudel
네팔
지자체연합(MuAN) 회장



P. Rajkumar
인도
코임바토르(Coimbatore) 시장



Shamim Al Razi
방글라데시
싱그라(Singra) 시장



Hilmy Mohamed
스리랑카
마탈레(Matale) 시장



Kinlay Dorjee
부탄
팀부(Thimphu) 시장

이클레이 유럽



Mercé Rius i Serra
스페인
바르셀로나(Barcelona) 시의회
환경위원



Dieter Salomon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시장



Pekka Sauri
핀란드
헬싱키(Helsinki) 시 부시장



Pex Langenberg
네덜란드
로테르담(Rotterdam) 시 부시장



Estella Marino
이탈리아
로마(Rome) 시 부시장

이클레이 오세아니아



Cathy Oke
호주
멜버른(Melbourne) 시의원



Wayne Walker
뉴질랜드
오클랜드(Auckland) 시의원



Caroline Knight
호주
만두라(Mandurah) 시의원



Roberto Colanzi
호주
아라(Yarra) 시의원



Eddie Ngava
솔로몬 제도
호니아라(Honiara) 시 부시장

특별 고문

Debra Roberts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시 환경계획&기후보호국장
Ranjit S. Chavan 인도 전국지방자치단체연구소(All India Institute of Local Self Government) 소장
Shri Farhad Suri 인도 남부멜리자지방정부 야당 대표
Matiur Rahman 방글라데시 바라살(Barisal) 시 보건팀장
Navin Ramsoondur 모리셔스 바코아스 피닉스(Vacoas Phoenix) 시장
Hironori Hamanaka 일본 IGES 이사회 의장
Somraj Suwansupana 태국 푸켓(Phuket) 시장
Stephen Yarwood 호주 아델라이드(Adelaide) 시 전 시장

GexCom 고문
남아시아 권역 집행위원회 고문
남아시아 권역 집행위원회 고문
남아시아 권역 집행위원회 고문
아프리카 권역 집행위원회 고문
동아시아 권역 집행위원회 고문
동남아시아 권역 집행위원회 고문
오세아니아 권역 집행위원회 고문



감사합니다 'gamsahabnida', Thank you!



2015-2018 이클레이 세계집행위원

2015 이클레이 세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힘써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총회는 전략에 대한 논의와 토론, 영감을 주는 혁신적인 도시 사례, 다양한 전문가 의견 등으로 바쁘게, 그리고 알차게 진행됐습니다. 총회 참가자 모두에게, 특히 연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전준비 등 좋은 발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준 덕분에 총회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클레이는 새로 회장으로 선출된 박원순 시장이, 놀라운 목표와 헌신, 비전을 가지고 이번 총회를 주최하며 보여준 탁월한 지도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아울러, 총회의 비전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 설 새 없이 노력하신 서울특별시 고위급 관리, 시 공무원, 그리고 함께 총회를 준비한 여러 협력기관들에 특별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클레이 향후 주요 일정

- 2015.9.26~27 포스트-2015 발전의제 채택을 위한 유엔 정상회의 (미국 뉴욕)
- 2015.10.1~31 2015 생태교통 세계축제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 2015.11.30~12.11 유엔기후변화협약 21차 당사국총회 및 2015 TAP 파빌리온 (프랑스 파리)
- 2016.3.2~4 2016 회복력 있는 도시 아태총회 (말레이시아 므라카)
- 2016.5.31~6.2 2016 메트로폴리탄 솔루션 (독일 베를린)
- 2016.7.6~8 2016 회복력 있는 도시총회 (독일 본)
- 2016.10.17~20 3차 유엔인간정주회의 (Habitat III) (에콰도르 키토)

이클레이

이클레이는 지역실천활동을 통한 전 지구적 지속가능발전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전 세계 1,000개 이상의 도시와 마을, 대도시로 이루어진 비영리 협회입니다. 전 세계 17개 사무국(사무소)에서 250명 이상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탄소를 적게 배출하고, 위기와 재난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생산적 및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하고, 다양한 생물과의 공존을 추구하며, 녹색 경제와 똑똑한 기반시설을 갖춘 행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회원 도시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활동 범위와 파급력은 전 지구적이며, 전 세계 도시 인구 20% 이상이 이클레이 활동의 수혜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대단히 지역적인 실천활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www.iclei.org